

〈일반논문〉

6·25전쟁과 한국 보건의학계 및 보건학의 형성*

이 동 원 **

〈목차〉

- I. 머리말
- II. 미군정의 점령통치와 한국인 의사들의 미국 유학
- III. 6·25전쟁 발발 이후 보건의학계의 변화
- IV. 미국식 공중보건학 도입과 보건소의 확산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6·25전쟁을 전후하여 한국 보건의학계와 보건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역사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보건의료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로 주로 1960년대 이후를 주목했는데, 이는 일정하게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6·25전쟁의 영향력과 1950년대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6·25전쟁 이후 보건의학계와 보건학의 형성 과정을 미군정과 유엔군 및 한국정부의 공중보건(Public Health) 활동과 미국에서 유학한 한국인 의사들의 활동 속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범석, 윤유선, 백행인, 주인호, 김인달, 양재모, 권이혁, 구연철, 김

* 이 논문은 2020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기지를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조교수

명호, 방숙, 박재빈 등 한국인 의사들이 한국 보건의료체계 형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나 경성, 세브란스, 대구의학전문학교에서 공부하여 일본식의 '임상 중심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해방과 6·25전쟁을 계기로 현장에서 임상 경험을 쌓았고, 주로 미국 유학을 통해 '임상 중심 교육'이라 할 수 있는 미국식 보건의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했다. 이들은 1950년대 중후반에 이루어진 서울의대의 미네소타 프로젝트보다 더 앞서서 미국식 보건의학을 적극적으로 수용, 도입하면서 보건의학계의 1세대로서 주요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교실 및 보건대학원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미국식 공중보건학(public health)이 한국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계기는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의 확산과 이를 뒷받침한 공중보건원의 창설이었다. 1953년 9월 공중보건원(School of Public Health, Korea)의 창설은 전국 단위에서 크게 증가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를 뒷받침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중보건원을 통해 미국식, 혹은 WHO식 '공중보건' 개념이 전파되었고, 이렇게 전파된 '공중보건' 개념은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에서의 보건의료 임상 활동을 통해 현실에서 구현되었다. 따라서 공중보건원은 한국의 보건의학계가 기존의 일본식 '공중위생' 개념을 바탕으로 미국식 '공중보건' 개념을 수용하여 한국식 보건의학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셈이다.

□ 주제어

공중보건, 예방의학, 보건진료소, 보건소, 공중보건원

I. 머리말

'인류세(Anthropocene)'를 실감하게 하는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은

감염병이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건인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현상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창엽은 국가 책임과 책무성을 지속해서 분산하고 '미시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국가 통치의 특징이 감염병을 관리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는 대응의 기술이나 원리와 흔히 상충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¹⁾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팬데믹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해서 현 상황을 “중국 바이러스에 대항한 우리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1950년 6·25전쟁 지원을 위해 도입한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고,²⁾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와 민병대의 갈등을 조장하는 트럼프의 국가주의, 고립주의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한국의 대응은 훨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뛰어난 의료체계, 시민의식,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K-방역'의 성취는 “급진적 투명성(radikale Transparenz)”에 대한 슈피겔지의 우려를 차치하더라도,³⁾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과정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문제'라는 약점과 과제를 드러냈다. 질병관리청과 의료인들의 헌신이 주목받았지만, 감염병 환자의 치료를 상당 부분 민간 병원과 자원 봉사자에 의존하고, 지역별 방역의 중심 역할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는 '지원기구'에 맡겨온 것은 국가 의무의

1) 김창엽, 「코로나 19의 정치경제」, 『현안과 정책』 303, 2020.3.23.

2) 박명립, 「코로나 19, 세계질서, 세계개인」,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에세이 시리즈』, 2020.3.24.

3) 독일의 슈피겔지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염자 이동경로를 포함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의 기술력이 스마트폰 실시간 경보와 10분이면 가능한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진단을 가능하게 했지만, 다른 국가의 정보보호법도 한국처럼 광범위한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Südkoreas Strategie der radikalen Transparenz」, 『Spiegel Netzwelt』 2020.2.29. (<https://www.spiegel.de/netzwelt/netzpolitik/covid-19-in-suedkorea-dem-virus-digital-auf-der-spur-a-50ef1096-ce69-465e-885c-bc77b-3443feb>)

‘외주화’, ‘민영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⁴⁾

그렇다면 대형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 진주의료원 폐원이 상징하는 의료 민영화 경향과 그에 대비되는 수준 높은 국민건강보험 체계, 공공성 강화 노력 등 모순적 경향들이 결합되어 있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역사성은 어떻게 구성된 것일까? 이 글은 탈식민, 분단, 냉전이 교차하는 세계사적·한국사적 전환기였던 6·25전쟁을 전후하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보건의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물론 보건의료체계의 전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학문 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행정체계와 예산 및 재정, 보건의료 인프라 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먼저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시론적(試論的)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형성과 관련한 역사학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근대 시기에 집중되었다. 이는 사회사적 관점이 부상하고 민족주의적 이분법이 약화되고 있는 한국 근현대의료사 연구의 전체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립적이라 간주되는 의료가 권력의 의지를 어떻게 얼마나 담고 있는지 분석하기에 식민지는 한편으로 중요하고 한편으로 편리하다.”는 설명으로 이해 가능하다.⁵⁾ 2010년대 들어 해방 이후를 다룬 연구가 꾸준히 제출되고 있지만, 오히려 자료 접근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 보건의료체계 연구가 활발한데 비하면 남한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특히 미군정기와 6·25전쟁기를 거치면서 미군과 유엔 및 유엔군의 공중보건(Public Health) 활동에 큰 영향을 받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UNCAACK의 전염병 관리에 대한 이입하의 연구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⁶⁾

4) 김창엽, 앞의 글.

5) 박운재, 「한국근현대 의료사의 연구동향과 전망 (2010~2019): 사회적 관점의 부상과 민족주의적 이분법의 약화」, 『의사학』 29-2, 2020.8., 433쪽.

권이혁, 윤덕선 등 1세대 보건학계 원로들이 주도한 서울보건연구회의 『보건백서』(1981)와 대한보건협회의 『대한민국보건발달사』(2014) 등 보건학계의 집단적 보건의료사 정리 성과물에서도 보건의료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로 1960년대 이후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하게 현실을 반영한 것이면서도 6·25전쟁의 영향력과 1950년대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⁷⁾ 이는 물론 6·25전쟁 연구가 한국의 냉전적 ‘학지(學知, academic knowledge)’ 연구로 나아가지 못한 전반적 경향과도 관련이 있지만, 자료적 한계와 함께 1960년대 이후 ‘한국적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선입견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⁸⁾

이 글은 이러한 연구사의 지형과 공백을 고려하면서 6·25전쟁 이후 보건의학계와 보건학의 형성 과정을 미군정과 유엔군 및 한국정부의 공중보건(Public Health) 활동, 한국인 보건의학계 인물들의 미국 유학과 6·25전쟁기 보건의료 활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방과 분단, 냉전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보건의학계와 보건학이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일본식 공중위생학에서 미국식 공중보건학으로 단절적 변화를 겪었던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중첩, 혼종되는 경향을 보였음을 조명하고자 한다.

6) 이임하,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보건·위생 정책」, 『사회와 역사』 100, 2013.12.; 이임하,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만성 전염병 관리」, 『사립』 49, 2014.7.; 이임하,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지도』, 철수와영희, 2020.

7) 서울보건연구회, 『보건백서』 上, 1981; 대한보건협회, 『대한민국 보건발달사』, 지구문화사, 2014.

8) ‘한국적 근대화’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것. 박명림, 「박정희와 김일성 - 한국적 근대화의 두 가지 길」, 『역사비평』 82, 2008, 126~156쪽.

II. 미군정의 점령통치와 한국인 의사들의 미국 유학

일제강점기의 조선에도 보건학·위생학을 공부한 조선인 의사들이 있었다. 미국박사 1호로 한국 공중보건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김창세(1893~1934)는 1916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25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위생학교실을 창설하여 주임교수를 맡았다. 그러나 1927년 세브란스의전 교수직을 사임하고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기 때문에 김창세를 통해 미국식 보건학이 식민지 조선에 뿌리 내리기는 어려웠다.⁹⁾

심상황(1909~1972)은 1935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개풍군 공의로 5년간 일하다가 1940년부터 일본 교토제국대학 위생학교실에서 공부하여 1945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방 후 경성의과대학 위생학교실 교수를 맡았고, ‘국대안 파동’을 거쳐 194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예방의학·위생학교실이 창설된 후에도 위생학 교수를 담당했다. 심상황은 1946년 세브란스의과대학 교수를 겸직하며 위생학교실 재건을 주도했기 때문에 서울의대의 권이혁, 연세의대의 양재모 등 한국 예방의학의 초석을 다진 인물들의 스승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식 보건

9) 유승흠, 「미국박사 1호, 공중보건학의 선구자, 김창세」,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편찬위원회,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제1집』, 한국의학원, 2007, 54~56쪽. 김창세는 1927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사임하고 중국 상해 위생교육협회로 근무지를 옮겼다가, 이듬해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 후원의 중국 하문(廈門) 공중위생회 촉탁으로 일했다. 1930년에는 미국과 상해를 오가며 외교 수완을 발휘하다가 1931년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위해 도미하였다. 그는 뉴욕에 거주하면서 사회활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반독립운동자로 협박과 폭력에 시달렸고 신경쇠약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던 중 1934년 3월 14일 의문의 최후를 맞았다고 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 예방의학 및 보건학 120년』, 2005, 49~55쪽.)

학을 접하게 된 것은 모두 해방과 6·25전쟁 이후 미국 유학을 통해서였다.¹⁰⁾

연합국에 의한 해방과 미군정의 점령 통치는 한국 의학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군정(軍政)에 의한 점령 통치를 시작한 미군의 눈에 한국의 보건 위생 현실은 심각한 위기 상태였다. 해방 당시 남한에는 이질,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뇌척수막염, 말라리아, 천연두, 일본뇌염 등이 흔했고 성병도 만연해 있었다. 이는 1차적으로는 미군에, 2차적으로는 그들이 통치할 남한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큰 위협 요소였다. 따라서 미군정은 1945년 9월 24일 군정법령 제1호로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을 공포했고, 위생국을 보건후생국, 보건후생부로 확대·개편해 나갔다.¹¹⁾

미군정은 1945년 9월 24일 이용설을 보건후생국장에 임명했는데, 그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24년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에서 정형외과학을 공부한 인물이었다. 이용설은 1926년 귀국하여 세브란스의 전 교수를 지냈으며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된 뒤 부일 협력으로 전향한 인물이었다.¹²⁾ 그는 최응석 등 사회주의 계열 의사들이 주장했던

1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70년사』, 2018, 23~24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 예방의학 및 보건학 120년』, 2005, 70~72쪽; 양재모, 「예방의학을 개척한 심상환」,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제1집』, 한국의학원, 2007, 145~148쪽.

11) 「법령 제1호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이 공포」, 『매일신보』 1945년 9월 27일.

12) 「이용설, 보건후생국장에 임명」, 『자료대한민국사』 1권, 1945년 9월 24일. 이용설(1895~1993)은 평양 숭실중학을 졸업하고 1915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졸업하던 해 3·1운동에 적극 가담했고, 1919년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 협화대학에서 수련의로 근무했다. 귀국후 경성 남대문교회 장로가 되었다. 1924년 세브란스 의전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에서 정형외과학을 공부한 뒤, 1926년 귀국, 세브란스 의전 교수를 지냈다. 1937년 경성제국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해 미국 뉴욕으로 가서 외과학을 연구하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에는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교수직이 박탈되었다. 하지만 이후 일제에 의해 대화숙에 가담하였고 일본의 대동아전쟁을 미화하

‘국영의료체계론’을 시기상조라고 보았고, 의료 시설과 전문 과목 담당 의사의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이 종합병원을 많이 설립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또한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¹⁴⁾

실제로 미군정은 한국인 의사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 “공중위생과 국민 건강 치리(治理)”를 배우고 돌아오도록 주선했다. 해방 후 미군정 위생국에서 보건행정 책임자인 글렌 맥도널드(Glen McDonald) 중령과 함께 일하던 최제창은 자신의 제안과 맥도널드의 주선으로 1945년 11월 초 미국에 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¹⁵⁾ 비용은 록펠러재단이 지불하고 하버드, 존스홉킨스, 미시간 등의 보건대학원에서 약 1년간 공부한 뒤 귀국 후 2년간

거나 찬양하였다.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재무국장을 맡았고 전쟁성금을 기부하였다. 해방후 미군정의 초대 보건후생부장을 지냈고 1945년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950년 인천에서 당선되어 제2대 민의원이 되었다. 이후 세브란스의과대학 학장과 병원장(1955~1962)을 지냈다. 서울중앙 YMCA이사장, 흥사단 이사장을 지냈다. 의학계에서는 한국에 정형외과학을 도입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1993년 사망했다. (이용설 [李容崙], 두산백과)

- 13) 최응석(1914~1998)은 도쿄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해방 직전까지 사카구치 코조우(坂口康藏) 교수 밑에서 내과 강좌 조수로 일했다. 1944년 2월 17일, 일본 전시기 최대의 사상·언론 탄압 사건인 ‘요코하마 사건’에 연루되어 치안유지법으로 체포되었다. 조선에 돌아온 최응석은 경성대학 의학부 제2내과 교수를 역임하며 ‘조선산업의학회’ 결성을 주도했는데 진보적 청년 의학도 150명을 모아 결성한 이 조직은 1945년 11월 17일 창립식을 갖고 ‘근로대중의 보건문제 해결’, ‘과학적 산업의학이론 확립’을 취지로 밝혔다. 1945년 12월에는 이에 대한 실천으로서 “최응석을 중심으로 경성대학 의학부, 경의전, 여의전 교수·학생 의료반이 영등포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노동자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조사 및 치료 활동을 전개”했으며, 일부 학생 조직은 농촌으로 가서 활동했다. (신영전·김진혁, 『최응석의 생애: 해방 직후 보건의료체계 구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의사학』 vol. 23, no.3, 통권 48호, 2014.)
- 14) 최규진, 『한국 보건의료운동의 궤적과 사회의학연구회』, 한울 아카데미, 2016, 27~29쪽.
- 15) 최제창, 『한미의학사』, 영림카디널, 1996, 170~173쪽.

공직을 수행한다는 조건부 유학이었다. 10명의 한국인 의사는 35~40세의 나이로 대부분 임상 경험과 영어 실력을 갖춘 중견급 인력이었다고, 최제창, 황용운, 윤유선, 김동철은 이미 군정청 위생국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래 표는 이들의 출신학교와 연수를 받은 보건대학원, 그리고 유학한 전공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¹⁶⁾

〈표 1〉 1945년 11월 미국 연수를 다녀온 한국인 의사 10인

성명	출신학교	연수한 보건대학원	전공 분야
황용운(黃龍雲)	피츠버그 의대	하버드	전염병
송형래(宋亨來)	경성의전	하버드	학교위생
최명룡(崔明龍)	세브란스의전	하버드	위생
최제창(崔濟昌)	버지니아대	존스홉킨스	위생행정
백행인(白行寅)	세브란스의전	존스홉킨스	전염병
한범석(韓凡錫)	경성제대 의학부	미시간	통계학
최창순(崔昌順)	세브란스의전	미시간	결핵
윤유선(尹裕善)	세브란스의전	존스홉킨스	성병
주인호(朱仁鎬)	경성의전	미시간	중독
김동철(金東喆)	상해 세인트존스의대	미시간	소아위생

출전: 「각 대학서 의학을 연구」, 『동아일보』 1946.12.22. 2면; 신영전·서제희, 앞의 글, 198쪽;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사』, 2010, 5쪽. (대한보건협회, 『대한민국 보건발달사』, 지구문화사, 2014, 15쪽의 표도 참고했으나 출신 대학에 오류가 있어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군정청은 1946년 2월 26일 ‘견미(遣美)사절단’으로 군정청 외무과장 문장욱(외무·인사 대표), 경성사범학교 교장 장리욱(학사 대표), 농상국의

16) 신영전·서제희, 「미군정 초기 미국 연수를 다녀온 한국인 의사 10인의 초기 한국보건행정에서의 역할」, 『보건행정학회지』 23-2, 197~198쪽; 대한보건협회, 『대한민국 보건발달사』, 지구문화사, 2014, 14~15쪽.

김훈(농무 대표), 상무부의 나기호(상무·재무 대표), 보건후생부의 구영숙(보건 대표), 보건후생부 부녀국장 고헌경(후생 대표) 등 6명을 국무부 초청 형식으로 미국에 파견하여 조선인 유학생 파견 문제와 미국인 기술자 초빙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¹⁷⁾ 이들은 8월 16일 귀국하여 공동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특히 전(前) 세브란스의전 의학부장 출신인 구영숙은 “우수한 의학생을 선발하여 1년씩 미국에 유학시킬 것을 제안”했다.¹⁸⁾

한편 미국 연수에서 돌아온 뒤 최제창은 보건후생부장 이용설을 보좌해 정부 수립 시기까지 보건후생부 차장을 맡았고, 백행인은 1947년 4월부터 약 2년 2개월 간 보건후생부 방역예방과장으로 재직했다. 윤유선은 성병과장을 맡았고, 주인호는 1947년 4월부터 1950년 8월까지 보건후생부 연구국장으로 일했다. 최창순은 보건후생부 의무관으로 일했고, 한범석은 공보처 내 통계국 인구조사과에서 활동하는 등 미국 연수를 다녀온 이들은 미군정기 보건의료 분야를 주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수립 이후까지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¹⁹⁾

이처럼 미군정 하에서 미국 유학을 다녀온 한국인 의사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자리 잡았지만 이것으로 ‘미국식 보건의료 체계’가 즉시 한국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정부 수립이 지연되면서 예산과 재정의 한계는 군정청의 보조금에 기대고 있던 각종 보건후생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1946년 서울의 부민병원 신설이 연기되었고, 1947년 6월 3일 미군정청을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편하면서 중앙 및 지방의 보건행정 조직들이 크

17) 「군정청, 조선인의교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키로 결정(46.1.28)」, 『자료대한민국사』 1권, 1946년 1월 18일; 「선진국의 문물 시찰에 견미(遣美)사절 6씨를 파송」, 『조선일보』 1946.2.26.; 「조선교육사절단, 미국 당국과 토의 개시」, 『동아일보』 1946.4.23.

18) 「미국에서 본 새 조선」, 『동아일보』 1946.8.18.

19) 신영전·서제희, 「미군정 초기 미국 연수를 다녀온 한국인 의사 10인의 초기 한국보건행정에서의 역할」, 『보건행정학회지』 23-2, 200쪽.

게 축소되었다. 15국 구조의 보건후생부도 의무국, 약무국, 예방의학국, 후생국, 조사분석국, 부녀국, 원호국의 7국 구조로 변경되었다.²⁰⁾

정부수립 이후에도 한국의 보건의료는 후퇴일로에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4월 기자회견에서 “보건후생부 독립의 결정은 보았으나 보건부를 독립시키려면 우선 그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고야 될 것이므로 현하 정세로는 곧 설치가 곤란하다.”고 보건부 독립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²¹⁾ ‘견미 사절단’으로 미국에 다녀와 의학생의 미국 유학을 주장했던 구영숙도 1949년 6월 초대 보건부 장관에 취임해 전염병 예방을 골자로 하는 1950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명년도 사업계획은 예산 관계로 수행이 곤란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부로서는 모든 부문에 있어 신규로 시설하는 것은 더욱이 가망이 없을 듯하며 현상유지 정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예산상의 한계를 자인했다.²²⁾

20) 『경성부 예산 편성』, 『조선일보』 1946년 4월 14일; 서울보건연구회, 앞의 책, 23~24쪽.

21) 「이승만 대통령, 보건후생부 독립 등 국내의 현안에 대하여 기자와 문답」, 『자료 대한민국사』 11권, 1949년 4월 8일. 보건후생부 예산은 미군정기에는 오히려 1947년 4억 1,500만원(전체 세출 예산 중 3.5%), 1948년 8억 6,700만원(동 4.5%)으로 증액되었다. 예산 규모로는 전체 12개 부 중 중간 정도에 해당했으나, 실제 예산 집행에서는 대개 우선집행 항목이었다. 또 연합국구제부흥기관(UNRRA) 등의 구호물자도 의약품, 위생용품이 많았던 데다가 군정청 예산 외에 미군이 자체적으로 지출한 액수도 있었기 때문에 보건위생 부문에 실제로 투여된 자금은 예산 규모를 훨씬 웃돌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부가 1949년 말에 제출한 1950년도 예산 중 보건부 예산은 1.61%에 불과했다.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69~72쪽.)

22) 「구영숙 보건부장관, 전염병 예방을 골자로 하는 1950년도 사업계획을 피력」, 『서울신문』 1949년 10월 9일. 구영숙은 1892년 황해도 황주 출생으로 1920년 예모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21년 귀국하여 개성 남성병원, 평양 기흥병원에서 근무했다. 미국 인디애나 폴리스대학에서 2년 동안 소아과를 전공한 뒤, 1925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소아과학교실이 창설될 때 초대 주임교수로 취임했다. 1934년 교수직을 사임하고 서울 서대문에 구소아과의원을 개원, 1937년에

III. 6 · 25전쟁 발발 이후 보건의학계의 변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전쟁은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 어렵게 자리 잡아가던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단숨에 붕괴시켰다. 전국에 산재한 1,000여개의 병원, 의원이 파괴되거나 문을 닫았고 의료 장비와 의약품도 고장이 나거나 못쓰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6·25전쟁기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 상당수의 군 의료 인력이 파견되었고, 이들은 육군병원, 구호병원, 이동외과병원과 병원선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에서 한국인 군 의관들과 협업하여 부상병을 치료하고 지역 사회에 만연한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의료진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유럽의 최신 의학과 기술을 접했고, 특히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통과 마취과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²³⁾

이와 함께 전쟁은 보건의료 체계의 변화를 추동했다. 전쟁 수행을 위해 피난민과 후방의 안정적 관리, 미군과 유엔군의 보건위생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 극동군 지휘 하의 유엔군은 이를 위해 교전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사 원조를 담당할 기구로서 주한유엔민사원조사령부(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UNCACK)를 창설했고, UNCACK은 공중보건과와 공중위생과를 갖추고 후방 지역에서 한국인의 보건과 위생을 관리, 통제하고자 했다. UNCACK의 공중보건

는 견지동으로 신축 이동하였다. 1946년 군정청 '견미사절단'에 참여하였으며, 1947년 유한양행 사장을 맡았고 1949년 초대 보건부 장관에 임명되어 3년 반 동안 일했다. (유승훈, 「첫 소아과 의사, 구영숙」,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편찬위원회,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제1집』, 한국의학원, 2007, 78~80쪽)

23)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1879~1960』, 웅진 지식하우스, 2009, 282~295쪽.

책임자들은 1951년 3월 중순 각 지방팀에 파견되었고, 1951년 4월이면 모든 지방에 UNCACK의 통제를 받는 공중 보건 자문 인력이 배치되었다. 아래 표는 1951년 3월 현재 지방에 파견된 공중보건 책임자의 명단이다.²⁴⁾

〈표 2〉 1951년 3월 중순경 UNCACK 공중보건과 책임자 명단

직책	이름(소속)	직책	이름(소속)
책임자	Dr. Franklin K. Causel(WHO)	충청남도	Dr. L. C. Smith(영국 적십자)
부책임자	Dr. Feiesal C. Ard(WHO)	경상북도	Dr. Louis Van Bommel(WHO)
경기도	Dr. Fenry B. La Pemmeraye(WHO)	경상북도	Dr. Wisener(캐나다 적십자)
경기도	W. Jones H. C. 중령	경상남도	Dr. R. W. Nielszen(노르웨이 적십자)
서울	Dr. Henry Meyer(WHO)	부산시	Dr. G. Rovirosa(WHO)
강원도	Dr. F. Nexmann(덴마크 적십자)	제주도	Morgan M. C. 소령
충청북도	T. Boaz M. C. 소령	거제도	Dr. H. Gertenbach(WHO)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각 지역의 공중보건 책임자 14명은 WHO 파견 7명, 각국 적십자사 파견 4명, 미군 3명으로 군인보다 국제기구 및 유엔가 입국의 전문가들이 더 많았다. 1951년 9월 30일까지 파견 단체별 직원 수는 WHO 21명, 국제난민기구 14명, 각국 적십자사 11명, 유엔 3명, 국제노동기구 1명으로 총 50명까지 늘어났다.²⁵⁾

UNCACK의 모태가 된 미 육군 제 8201부대(the 8201st Army Unit), 공중위생복지파견대(Public Health and Welfare Detachment, PHWD)는 일본을 점령 중이던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의 특별 참모부, 공중위생복지국(Public Health and Welfare Section)의 한국 현지 파견대이자 현지 민사팀(Civil Affairs Field Team)이었다.²⁶⁾ UN-

24) 이임하, 「한국전쟁기 유엔간원조사령부(UNCACK)의 보건·위생 정책」, 『사회와 역사』 100, 2013, 330~331쪽.

25) 이임하, 위의 글, 332쪽.

CACK은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히 질병과 기아, 사회 불안을 예방하고, 남한과 북한 지역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 미 제8군의 민사 기능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을 공식적인 임무로 했다.²⁷⁾

원래 한국의 재건을 담당하도록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조직된 기구는 유엔한국재건단(UNKRA)이었다. 그러나 중국군 참전으로 전쟁이 장기화 되고 UNKRA의 활동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UNKRA 소속의 다양한 국적 출신 인물들도 UNCACK에 파견되어 활동하게 되었다.²⁸⁾ 이러한 UNCACK의 활동은 정전협정 이후에는 한국민사원조사령부(Korean Civil Assistance Command, KCAC)로 이어졌는데, 한국의 의료인들은 이들과 협력하며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거나 미국 유학을 통해 미국식 보건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이를 한국 의학계에 자리 잡도록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미군정청 보건행정요원으로 미시간 보건대학원에서 미국 연수를 다녀온 한범석(?~2001)을 들 수 있다. 한범석은 1942년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생리학교실 조수로 일하다 해방을 맞았다. 1945~1946년 미국 유학 후 1948년 공보처 내 통계국 인구조사과에서 일했으며 1949년 보건부 의무과장을 거쳐 6·25전쟁 발발 후에는 UNCACK의 한국측 보건책임자로 활동했다. 한범석은 1953년 9월 한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보건부 산하에 설치된 공중보건원(School of Public Health, Korea)의 초대 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공중보건원을 미국식 보건대학

26) Troy J. Sacquety, “Same Organization, Four Different Names : U.S. Army Civil Affairs in Korea 1950~1953”, *Veritas* Vol. 7, No. 1, 2011.

27) 김학재,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구원’의 신화」,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52쪽.

28) UNKRA와 UNCACK, KCAC의 갈등과 협력에 대해서는 이동원,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90~99쪽.

원 체제로 운영하고 싶었으나 공중보건원이 문교부 산하 기관이 아니었던 까닭에 보건대학원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56년 3월 서울의대 예방의학 전공이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학 전공으로 확장되면서 공중보건학 교수로 영입되었고, 명주완 학장을 도와 서울의대의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1957년에는 인구학을 연구하기 위해 프린스턴 대학으로 출국했다.²⁹⁾

윤유선(1910~1987)은 1935년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하고 1935년부터 1945년 3월까지 세브란스병원 내과와 피부과 및 비뇨기과에서 부수, 조수, 강사로 재직했으며, 1943년 동경제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 위생국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1947년 미군정 보건후생부 성병과장, 1948년 방역과장 및 만성병과장을 맡았다. 윤유선은 전쟁 중에도 보건부 만성병과장으로 활동했으며, 1955년 보건부 의사국장, 1956년 중앙방역연구소장, 1958년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1959년 국립중앙보건원 제2대 원장을 역임했다. 윤유선은 1969년 7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초대 학장 겸 초대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에 취임해 보건의학계의 토대를 확장하는데 기여했다.³⁰⁾

백행인(1915~?)은 1939년 세브란스의전 졸업 후 같은 해 4월부터 세브란스부속병원 내과 조수로 일했고, 1944년부터 내과 강사로 일하던 중 해방을 맞았다. 해방 이후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1947년 4월부터 남조선과도정부 보건후생부 방역예방과장, 1949년 7월부

29) 「공중보건원 창설」, 『경향신문』 1953.8.28.; 「보건사업에 한 몫, 요원 강습회 수료」, 『경향신문』 1954.3.8.; 권이혁, 『권이혁 회고록, 또하나의 언덕』, 신원문화사, 2000, 132쪽, 157~158쪽; 신영전·서제희, 앞의 글, 200~203쪽.

30)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사』, 2010, 5~7쪽.

터 대한민국 보건부 방역국 예방과장으로 재직했다. 6·25전쟁 발발 후에는 피난전시의료요원으로 UNCACK의 구호활동을 지원했고, 1956년까지 보건부 방역국장을 역임했다. 백행인은 1956년 9월 이화여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을 창설하고 초대 주임교수를 맡아 1981년 2월까지 재직하며 이화여대 보건소장(1960년), 의과대학 제5대 학장(1968~1972년)을 역임했다.³¹⁾

주인호(1919~?)는 1942년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약리학교실 조교로 일하다 해방을 맞았다. 미시간 보건대학원 유학 후 1947년 4월부터 1950년 8월까지 보건후생부 연구국장으로 일했고, 1950~1955년에는 육군 소령으로 군 복무하며 유엔군사령부 보건자문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1955년 4월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전신인 서울여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로 부임했고, 1958년부터 3년간 미국 해군의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1959년 수도의과대학 예방의학 부교수, 1960년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³²⁾

이상의 인물들이 미군정기 미국 유학 이후 6·25전쟁기 UNCACK, 유엔군사령부, 혹은 한국 정부의 보건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이후 보건의학계의 1세대로 자리잡은 인물들이라면, 아래에서 살펴볼 인물들은 6·25전쟁기 보건의료 활동을 경험하고 1950년대 중반 한미재단 혹은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 보건대학원 유학을 다녀와 역시 보건의학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 인물들이다.

1941년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한 김인달(1915~1985)은 피부비노기과 부수(副手), 경기도 의정부 적십자병원 임상의로 임상 경험을 쌓았고,

31) 신영전·서제희, 「미군정 초기 미국 연수를 다녀온 한국인 의사 10인의 초기 한국보건행정에서의 역할」, 『보건행정학회지』 23-2, 199~202쪽.

32) 신영전·서제희, 위의 글, 200~203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0년사』, 2004.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서 위생학을 연구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1년 후 배인 한범석은 해방 직후 유학을 떠났지만 김인달은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범 이후 1947년 예방의학·위생학교실에서 예방의학 담당 전임강사로 임명되어 최희영 교수를 보좌했다. 최희영 교수가 해임되고 교실명이 예방의학교실로 개칭된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에서 심상황 교수와 함께 교실을 지켰고, 부산 범일동의 조선방직사에 부속병원을 설치할 때 부속병원장을 맡았다. 김인달은 한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1954년 캘리포니아대학(UC 버클리) 보건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몇 달을 기다려 비자를 받은 날이 배정된 UC 버클리 보건대학원의 입학일이라 내년 에 오라는 전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여 특별 청강생으로 MPH(Master's in Public Health) 과정을 공부하며 학위는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김인달은 1년을 4쿼터로 나누어 매학기 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미국식 교육 방법을 적용했고, 명주완 의과대학장과 보건대학원 신설을 주도하여 1959년 창설된 보건대학원의 교무과장, 제2대 보건대학원장(1960~1971년)을 역임했다.³³⁾

1948년 세브란스 연합의과대학을 졸업한 양재모(1920~1928)는 위생학교실 조교로 심상황 교수를 주임교수로 모시고 교실 재건에 힘쓰다 6·25전쟁을 겪었다. 그는 서울 수복 후 보건부에서 보건과 모자보건계장으로 5개월간 일하다가 1951년 UNCACK 충청북도 지부 보건담당의사로 1년 동안 근무했다. 그 후 박술음 사회부장관의 부탁으로 사회부장관 수석

33) 권이혁, 「예방의학, 김인달, 1915~1985」, 서울대학교 한국의학인물사 편찬위원회 『한국의학인물사』, 태학사, 2008, 229~235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70년사』, 2018, 24~25쪽; 박재빈, 「보건 통계와 나의 만남, 권이혁 외 『보건학과 나: 51인, 대한민국 보건학을 말하다』, 신원문화사, 2008, 226~236쪽; 「보건대학원의 초석을 다진 김인달」,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편찬위원회,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제2집』, 한국학연구원, 2009.

비서관, 총무과장으로 일했고, 전쟁 후 위생학교실로 복귀한 뒤 한미재단 유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1954년, 미시간 보건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10명의 장학생 중 양재모, 김인달(UC 버클리)과 김명호(미네소타)가 예방의학을 공부했다. 양재모는 1955년 보건학석사를 마치고 귀국해 조교수로 승진했고, 1956년 이후 심상환을 대신해 교실을 이끌었다. 1957~1972년 주임교수를 역임했으며 1960년대에는 국제가족계획연맹(IPPF), 미국 인구협회 등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서울의대 권이혁 교수팀과 함께 인구 및 가족계획에 대한 연구와 가족계획 사업을 주도했다.³⁴⁾

1947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권이혁(1923~2020)은 1·4후퇴로 부산에 내려가 피난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선배인 한범석을 만났다. 한범석은 UNCACK의 보건 책임자를 맡고 있었는데, 권이혁에게 춘천에 있는 미 제9군단 민사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다. 권이혁은 가평 진료소에서 2개월 근무 후 춘천 병원장으로 임명되었고, 1년 후에 병원은 포천으로 이동했다. 권이혁은 군단장 쟈킨스(Reuben E. Jenkins) 중장에게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는데, 쟈킨스 중장은 우선 미국에서 공부할 것을 권했고, 미네소타 의대 출신인 미 제9군단 의무부의 하이트(Hight) 대위 추천과 한미재단 지원으로 1955년 미네소타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앤더슨(Gaylord W. Anderson) 보건대학원장을 지도교수로 하여 공중보건학을 공부했다.³⁵⁾ 권이혁은 미네소타대학의 MPH(Master's in Public Health) 과정에서 공부했는데, 이는 서울의대의 미네소타 프로젝트와는 별도의 과정이었다. 그는 1956년 9월 귀국하여 12월 서울의대 '대우 조교

34) 최제창, 『한미의학사』, 영림카디널, 1996, 307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연세 예방의학 및 보건학 120년』, 2005, 49~55쪽; 양재모, 「열정을 쏟았던 세 분야」, 권이혁 외, 『보건학과 나: 51인, 대한민국 보건학을 말하다』, 신원문화사, 2008, 299~304쪽.

35) 권이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설립과 나」, 권이혁 외, 『보건학과 나: 51인, 대한민국 보건학을 말하다』, 신원문화사, 2008, 45~51쪽.

수'로 발령을 받았으며 1959년 보건대학원 창설을 주도했다.³⁶⁾ 이때 보건대학원에는 보건학과 하나만을 두었고, 그 아래 8개 전공 분야를 설치했는데, 이는 미네소타 대학교 보건대학원 기구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³⁷⁾

1948년 세브란스의대를 졸업한 구연철(1923~?)은 공직에 입문하여 보건부 보건과장과 장관 비서관을 역임했고, 1949년에는 뇌염 방역 활동을 위한 방역 지도관으로 강원도에 파견을 가기도 했다. 6·25전쟁 발발 후에도 보건부에서 일하다가 이용승, 이우진, 염정섭과 함께 1952년 WHO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필리핀 공중보건대학원(College of Public Health, CPH)에서 유학하고 돌아왔다. 1953년 공중보건원 설립을 주도하며 부원장을 3년간 역임했고, 1956년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에 부임하여 백행인과 함께 교실 창설과 발전에 기여했다. 이후에는 이화여대 보건소장, 의과대학 학장을 맡았다.³⁸⁾

전남 광양 출신으로 1945년 대구의전을 졸업한 김명호(1923~?)는 6·25전쟁 발발 후 전남 송정 보건진료소장을 맡았고, 전염병과 위생 문제 등 공중보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53년 9월~11월 일선 보건기관 의사와 육해공군 군의관을 대상으로 개최된 한미재단 지원 공중보건원 세미나에 제1기생으로 참석했고, 공중보건원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김명호는 한미재단 장학생에 선발되어 1954년 미네소타 대학 보건대학원 MPH 과정에 입학했는데, 그가 전공한 분야는 학교보건·보건교육이었다. 그는 졸업 후 귀국하여 공중보건원 원장인 한범석이 서울의

3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70년사』, 2018, 24~25쪽.

37) 권이혁, 앞의 글, 50~51쪽.

38) 「각지에 지도관, 보건부서 파견」, 『조선일보』 1949.9.19.; 「WHO 장학생 파견」, 『경향신문』 1952.8.22.; 「한국 공중보건과 지역의료의 선구자, 구연철」,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편찬위원회,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제2집』, 한국의학원, 2009, 130~132쪽.

대에 교수로 영입될 때 강사로 함께 들어가 보건학 강의를 맡으며 보건대학원 창설에 기여했다. 1957년 9월부터는 연세대학교 위생학교실(이후 예방의학교실) 전임강사로 전직하였고, 학생실습 지도를 위해 1964년까지 경기도 고양군 보건소장을 겸했다. 김명호는 1961~1962년 WHO 장학생으로 UCLA에서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1964년부터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1972~1975년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 등을 지냈다.³⁹⁾

1944년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한 방숙(1923~2020)은 세브란스의전 최영태 교수의 미생물학교실에서 조교로 일하다 해방을 맞이했다. 최영태가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예방의학교장을 맡게 되면서 방숙도 콜레라 방역 활동에 참여했다가 1946년 10월 부산해항검역소 소장을 맡았고, 부산에서 6·25전쟁 발발을 맞았다. 피난 정부가 부산에 내려오면서 백행인 방역국장의 요청으로 방역국 예방과장을 맡게 되었고, 천연두 박멸을 위한 중두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전염병 방역 일선에서 활약했다. 백행인 방역국장의 추천으로 록펠러 재단 장학금을 받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1954년부터 보건학석사(MPH) 과정에 유학한 뒤 1955년 귀국하여 세브란스병원 흉곽내과에서 결핵 환자를 진료했으며 미국원조사절단(USOM) 나이트(Knight) 보건국장의 요청으로 USOM 보건고문관으로 일했다. 4·19혁명 이후 장면 내각에서 이병학 보사부 차관 요청으로 방역국장으로 일했고, 1961년부터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⁴⁰⁾

194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박재빈(1925~?)은 이북에서 내려온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경기도청 양정과에 적을 두고 일하며 위생

39) 「연대 보건대학원장 김명호씨」, 『경향신문』 1983.9.22. 2면; 김명호, 「보건교육·학교보건과 나」, 권이혁 외, 『보건학과 나: 51인, 대한민국 보건학을 말한다』, 신원문화사, 2008, 103~107쪽.

40) 방숙, 「지역보건과 나」, 권이혁 외, 위의 책, 2008, 252~261쪽.

학의 심상황 교수의 말단 교실원으로 도서실을 정리하며 통계학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경성제대 의학부 출신의 박윤덕, 한범석 등이 일하던 공보처 통계국 인구조사과를 드나들었는데, 6·25전쟁 발발과 9·28 서울 수복 후 이해의 경기도지사의 요청으로 UNCACK 경기도 팀의 통역을 맡아 구호활동에 참여했다. 1952년 UNCACK의 서울팀 현지 직원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인 사망 통계를 연구했고, 1953년에는 한범석 박사의 요청으로 WHO 장학생으로 필리핀 공중보건대학원(CPH)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구연철 박사와 함께 공중보건원(School of Public Health, Korea)의 교수진으로 합류했다. 1954년 양재모, 김인달, 김명호 등과 한미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나 여권과 비자를 받는 데에 시간이 걸려 1955년 UC 버클리의 MPH과정에 들어갔다. 박재빈은 1956년 MPH 학위 취득 후 1959년 같은 대학에서 인구통계학 분야로 공중위생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60~62년 내무부 및 경제기획원 통계국 통계관, 1960~66년 WHO 미주 지역 통계담당 의무관을 거쳐 1966년부터 하와이 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를 지냈다.⁴¹⁾

아래 표는 이상에서 언급한 한국인 의사들의 출신학교 및 졸업 연도, 6·25전쟁기 활동과 미국 유학 대학 및 유학 시기, 전쟁 이후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1945~1956년 미국 보건대학원 유학을 다녀와 보건의학계를 주도한 한국인 의사 10인

성명	출신학교 (졸업연도)	6·25전쟁기 활동	유학 대학 및 시기	전쟁 이후 활동
한범석	경성제대 의학부(1942)	UNCACK 보건책임자	미시간(1945~1946)	공중보건원 초대 원장,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41) 박재빈, 「보건통계와 나의 만남」, 권이혁 외, 앞의 책, 226~237쪽; 「유학생 소식」, 『동아일보』 1959.6.28.; 「유학생 소식」, 『동아일보』 1959.8.12.

성명	출신학교 (졸업연도)	6·25전쟁기 활동	유학 대학 및 시기	전쟁 이후 활동
윤유선	세브란스의전 (1935)	보건부 만성병과장	존스홉킨스(1945~1946)	보건부 의사국장 중앙보건원 2대 원장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백행인	세브란스의전 (1939)	보건부 방역국 예방과장	존스홉킨스(1945~1947)	이화여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주인호	경성의전 (1942)	보건부 연구국장 유엔군사령부 보건자문관	미시간(1945~1946)	서울여자의과대학, 수도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인달	경성제대 의학부(1941)	부산 피난 시기 서울의대 부속병원 원장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UC 버클리(1954~1955)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양재모	세브란스의대 (1948)	UNCACK 충북지역 보건 담당의사	미시간(1954~1955)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권이혁	서울의대 (1947)	제9군단 민사처병원	미네소타(1955~1956)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구연철	세브란스의대 (1948)	보건부 보건과장, WHO 장학생	필리핀 공중보건 대학원(1952~1953)	공중보건원 부원장,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김명호	대구의전 (1945)	전남 송정 보건진료소장	미네소타(1954~1955)	공중보건원 직원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방숙	세브란스의전 (1944)	보건부 방역국 예방과장	존스홉킨스(1954~1955)	USOM 보건고문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재빈	서울의대 (1949)	UNCACK 경기도팀 통역 UNCACK 서울팀 직원	UC 버클리(1955~1956)	공중보건원 감사 하와이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

이상의 인물들이 한국 보건의학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향성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들은 주로 해방 이전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나 경성, 세브란스, 대구의학전문학교에서 공부하여 '이론 중심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일본식 강좌제 교육 체계에서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훈련받았다. 그러나 해방 이후 정부의 보건행정이나 6.25전쟁기 UNCACK의 보건의료 활동에 참여했고, 록펠러재단이나 한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 보건대학에서 보건학 석사(MPH) 과정을 수학할 수 있었다. 이는 '이론 중심 교육'을 받은 바탕 위에 실제 현장에서 임상 경험을 쌓고, '임상 중심 교육'이라 할 수 있는 미국식 보건학을 체계적으로 학습

하는 과정이었다.⁴²⁾

기존 연구에서는 1955~1962년 이루어진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 일본식의 이론중심 의학교육 방식을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임상중심, 실험중심의 미국식 의학교육 방식으로 대체”되어 갔다고 보았지만,⁴³⁾ 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한정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자리잡은 한범석, 김인달, 권이혁도 미네소타 프로젝트 이전에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 따라서 초창기 한국 보건의학계의 인물들은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그 이전 시기부터 미국 유학 혹은 6·25전쟁기 보건의료 활동 경험을 통해 미국식 보건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이후 한국 주요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교실 및 보건대학원을 이끌고 창설하면서 보건의학계의 1세대로서 한국에 미국식 보건학을 도입, 적용했던 것이다.

이밖에도 송인현(1949년 광주의학전문학교 졸업)이 1953년부터 전남

42) 일본은 세계의학의 1910년대까지 주요 흐름이었던 ‘이론 중심의 의학교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1920~30년대 사이 미국에서는 ‘플렉스너(Flexner) 보고서’를 전후로 의학교육 개혁이 일어났다. 이는 실험실 교육을 중심으로 한 기초의학 교육과 병원 내 임상 실습의 강화, 연구와 교육의 결합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또한 유럽과 달리 그 이전 시기에는 거의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의과대학(medical college), 병원(hospital), 대학교(university)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제도적, 실제적 측면에서 한 울타리로 모이게 됨으로써 미국은 과학적 의학(scientific medicine)이 발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본래 독일식 의학의 전통과 교육방법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고, 미국과 전쟁을 하는 적대적 관계가 되면서 이처럼 변화하는 세계적 의학교육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었다. 독일 의학은 19세기 후반까지 세계 의학을 이끌었지만, 연구와 교육이 분리되고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해방 당시 한국은 독일식 의학교육에 바탕을 둔 일본식 의학 풍토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상태에 있었다. (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학위논문, 2006, 53~54쪽.)

43) 이왕준, 위의 책, 196~197쪽.

의대 위생학교실 전임강사로 있다가 1955년 록펠러 재단 후원으로 노스캐롤라이나 보건대학원에서 유학했고,⁴⁴⁾ 차철환(1953년 서울의대 졸업)이 1953년 예방의학교실 조교로 있다가 1958년 전임강사 임용과 함께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미네소타대학에서 유학했다.⁴⁵⁾ 이들도 각각 유학 후 전남의대와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자리 잡았다. 1959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창설된 후에는 예방의학교실 공중보건학 과정에 조교로 들어온 박형종(1956년 서울의대 졸업), 고응린(1957년 서울의대 졸업), 허정(1957년 서울의대 졸업), 최능원(1958년 서울의대 졸업)이 미네소타 프로젝트 교환교수 과정에 선발되어 1~2년씩 유학을 떠났다. 이 중 최능원은 미국에 머물렀으나 박형종, 고응린, 허정은 귀국하여 보건대학원 교수로 자리 잡았다.⁴⁶⁾ 이들은 비록 6·25전쟁기 보건의로 활동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1950년대 중후반 미국 보건대학원에서 MPH 과정을 마치고 1세대를 보좌하며 보건의학계의 중추적 역할을 한 1.5세대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IV. 미국식 공중보건학 도입과 보건소의 확산

한국에서 ‘보건(保健)’이란 용어는 해방 이전에도 흔히 사용되었다. 매일신보에는 1912년 “인천 보건조합”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이고, 1918년

44) 송인현 「예방의학과 나의 삶」, 권이혁 외 『기초의학과 나의 삶』, 신광출판사, 2009, 232~239쪽.

45) 이왕준, 앞의 책, 83쪽.

46)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50년사, 1959~2009』, 2009, 210~211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70년사』, 2018, 24~25쪽; 이왕준, 위의 책, 83~84쪽.

에는 “뇌의 보건법”이라는 제하의 시리즈 기사도 나타난다.⁴⁷⁾ 게다가 조선에서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근대적 보건의료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⁴⁸⁾ 최제창이 회고한 것처럼 “우리 열 명의 한국 의사가 광복 후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미국 의과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조국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돌아오자, 보건이라는 용어조차 없던 한국에 보건학이 창설되었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⁹⁾

그러나 앞서 살펴본 미군정기의 유학과 6·25전쟁기의 보건의료 활동, 정전협정 이후 미국 보건대학원 유학을 경험한 보건의학계 인물들의 등장으로 해방 이후 ‘일본식 공중위생’이 ‘미국식 공중보건’으로 학계에 자리 잡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⁵⁰⁾ 이와 관련하여 주인공은 “공중보건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1947년 3

47) 「仁川保健組合」, 『매일신보』 1912.11.9.; 「衛生講話: 腦의 保健法」, 『매일신보』 1918.3.1.~5.

48)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아카데미, 1997, 142~147쪽.

49) 최제창, 『한미의학사』, 영림카디널, 1996, 172쪽. 한국어 표현으로 ‘보건(保健, health care)’은 가장 넓은 범위에서 집단(population)의 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의료(醫療, medical care)’는 집단보다는 개인(personal)의 건강과 관련된 것, 특히 의료 전문직의 활동 또는 이와 연관된 사회적 현상이나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는 보건과 의료 모두를 포함하는 다소 타협적인 개념으로, 건강과 보건 또는 의료와 연관된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활동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창엽·김명희·이태진·손정인, 『한국의 건강 불평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31~32쪽.)

50) 일제강점기 보건행정을 경무국 산하 위생과의 위생경찰들이 담당하도록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는 보건의료 문제를 식민지 정책 수행 차원에서 편의적 경찰 행정 문제로 인식하면서 하향적, 사회 통제적 방식으로 일관했다. 이는 질병과 범죄를 동일시한 것으로, 사회 안정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자와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세균을 모두 불순, 불량, 불온, 부정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들 요소를 적발, 차단, 격리, 제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51~52쪽; 정근식, 「식민지 위생경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유산-식민지 통치성의 시각에서」, 『사회와 역사』 90, 2011, 221~270쪽.)

월부터”라고 주장하면서 “최제창, 최창순, 송형래, 한범석, 백행인, 윤유선, 나, 몇 사람이 명동 마돈나 다방에 모여 ‘public health’를 무어라고 번역 하느냐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공공위생, 일본 내에서도 역시 공중위생이라 부르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보건 이란 새 낱말로 통일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낙착되었다.”고 보았다. 박재 빈도 한범석과 주인호 두 사람이 주로 ‘보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 면서 “학계에서는 일본식으로 위생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 두 분이 주로 보건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회고했다.⁵¹⁾

이러한 의학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미국식 공중 보건학(public health)이 한국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계기는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의 확산과 이를 뒷받침한 공중보건원의 창설이었다. 보건진료소의 모태가 된 것은 6·25전쟁기의 의료구호반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유엔의 한국민간구호계획(Civil Relief in Korea, CRIK) 원조와 UNCACK의 활동, 각국 보건위생 전문가의 투입과 함께 6·25전쟁기 보건위생 상황을 개선시킨 요인은 UNCACK과 보건부가 주도한 의료구호반 편성과 활동이었다. 서울 수복 후 보건부는 의사, 간호사 약 2천명을 포함한 의료구호반 500반을 조직할 계획을 세웠고 10월 상순에 이미 150반을 편성했다. 이때 의사와 간호사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의사는 일반 개업 의의 협조를 구했으며 각 의과대학 재학생 중 상급반인 3~4학년 학생들을 동원했고, 간호사는 숙성과를 설치하여 급속 양성 후 의료반에 참가시키는 방식을 취했다.⁵²⁾ 1950년 12월에도 보건부는 방역반, 위생반, 검역반, 모자보건반을 조직, 강화했고 서울과 경기, 강원 지구에 중점을 두어 50반의 긴급의료반을 조직했다.⁵³⁾

51) 신영전·서제희, 앞의 글, 204쪽

52) 「의료구호반 편성」, 『동아일보』 1950년 10월 12일.

53) 「방역반 등 조직 강화, 전·이재민 구호에 만전」, 『동아일보』 1950년 12월 10일.

전쟁과 피난으로 정부수립 후 서울에 집중되었던 의사 및 의료인들이 지방으로 분산된 것은 역설적이지만 의료구호반 편성에 도움이 되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군의관으로 투신해 군진의학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의사, 간호사, 보조로 구성된 의료반은 예방 접종과 의료 구호를 위해 각 지역에 한시적으로 조직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의료반들은 무의촌 문제 해결, 전염병 예방과 정확한 보고 체계 확립, 공중위생 계몽 등을 담당할 영구적 기구로의 전환을 필요로 했다. 이에 따라 UNCACK과 보건부는 일정 지역의 공중보건을 담당할 보건진료소의 설립을 추진했다.⁵⁴⁾

의료반의 보건진료소 전환은 195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51년 3월 전국에 49개에 불과했던 보건진료소는 4월 말 232개, 9월 말 343개로 증가했다.⁵⁵⁾ 보건부는 인구 5만 명을 단위로 전국에 500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23개, 경기도에 63개, 충청에 33개, 충남에 54개, 전북에 54개, 전남에 62개, 경북에 77개, 경남에 75개, 강원에 31개, 제주에 7개를 설치하고 종합구호병원도 29개를 설립하기로 했다.⁵⁶⁾

정전협정 이후 재건 과정에서도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의 확대는 지속되었다. 1953년에 15개소의 보건소와 471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58년에는 26개소의 보건소와 499개소의 보건

54) 이임하, 앞의 글, 346쪽. 500여 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UNCACK의 제안은 일본에서 시행한 보건소 설립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SCAP 보건후생국장 샘스(Crawford T. Sams)는 일본의 보건행정에 대해 “1945년 종전시까지 일본에는 극히 원시적인 보건후생기구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보건후생 행정기구를 창설할 수 있었다. 보건후생의 근본 즉 질병예방, 의료, 후생 및 사회보장을 단일기구 내에 합동하는 결정을 보았다.”고 회고했다. (이임하, 위의 글, 348~349쪽)

55) 이임하, 위의 글, 347쪽.

56) 「오백개소에 공중진료소」, 『동아일보』 1951년 12월 14일.

진료소를 갖추었다. 그리고 1962년 9월 24일 법률 제1160호로 전면 개정된 보건소법에 의해 보건진료소는 점차 보건소로 대체되었고 1962년 현재 전국에 189개소의 시·군 보건소가 설립되었다.⁵⁷⁾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의 확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보건의로 인력

의 양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보건부 산하에 공중보건원(School of Public Health, Korea)이 창설된 것은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1953년 8월 경향신문은 “공중보건의(公衆保健醫)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원을 창설하리라 하는데 보건의의 양성은 국민 보건에 크게 기대되는 바 있어 동 보건원의 발전이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⁵⁸⁾

권이혁, 박재빈 등의 회고에 의하면 공중보건원 창설을 주도한 인물은 한범석이었다. 박재빈은 1953년 후반 한범석 박사가 사무실로 찾아와 “우리도 Public Health School을 만들게 되었으니 합류하라”고 상당히 흥분한 눈치로 제안했다고 회고했다. 한미재단이 한국의 보건인재 양성을 위해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거금인 1만 달러를 희사했으며, 회현동의 옛 결핵협회 건물에 ‘공중보건원’을 설립했다는 것이다. 한범석이 원장을 맡

〈표 4〉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연도별 추세

연도	보건소	보건진료소
1953	15	471
1954	16	470
1955	16	515
1956	17	505
1957	22	513
1958	26	499
1959	68	-
1960	80	-
1961	87	-
1962	189	-

출전: 서울보건연구회, 『보건백서』 上, 1981, 27쪽.

57) 서울보건연구회, 앞의 책, 26~27쪽.

58) 「공중보건원 창설」, 『경향신문』 1953.8.28.

고, WHO장학생으로 필리핀에서 공중보건대학원(CPH)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구연철 박사를 부원장, 박재빈을 강사로 하여 교수진은 세 명뿐이었으나, 기용숙(서울의대 미생물학교실), 전중휘(서울의대 내과학교실), 그리고 미 제8군과 민사원조사령부(CAC)의 국내외 보건계, 의료계 인사가 망라되어 강의했다고 한다.⁵⁹⁾

권이혁도 한범석 박사가 한미재단 후원으로 1953년 공중보건원을 보건부 산하에 개설하고 2개월 과정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회고했다. 공중보건원은 중구 예관동에 소재했던 중구 보건소에서 시작되었고, 얼마 후 회현동 건물로 옮겨갔는데 4기에 걸쳐 교육이 실시되었고 1955년 12월말까지 계속되었다. 기용숙 교수가 미생물학, 전중휘 교수가 전염병관리학, 최영태 박사가 산업보건학, 미 제8군의 에버트 중령이 역학(疫學)을 담당했고, 한범석 박사가 보건행정학을 담당하면서 과정을 총괄했다고 한다. 공중보건원 과정 제1기는 1953년 10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2개월간이었으며 수강자는 20명이었는데 각 도 및 육해공군에서 각각 2명씩 참가했고, 노량진 보건소장을 지내던 민창동 박사 등 쟁쟁한 인물들이 제1기생이었다.⁶⁰⁾ 전남 송정에서 보건진료소장을 맡고 있던 김명호도 이때 제1기생으로 참여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공중보건원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재단 장학생으로까지 선발되었다.⁶¹⁾

59) 박재빈, 「보건통계와 나의 만남」, 권이혁 외 『보건학과 나: 51인, 대한민국 보건학을 말한다』, 신원문화사, 2008, 234~235쪽. 구연철은 1949년 강원도 보건장관 비서관으로 일했고, 보건부 직원 중 WHO 장학생으로 선발된 4명에 포함되어 1952년 8월 말 유학을 떠났다. (「각지에 지도관, 보건부서 파견」, 『조선일보』 1949.9.19.; 「WHO 장학생 파견」, 『경향신문』 1952.8.22.)

60) 권이혁, 『권이혁 회고록, 또하나의 언덕』, 신원문화사, 2000, 157쪽; 대한보건협회, 『대한민국 보건발달사』, 지구문화사, 2014, 18쪽.

61) 김명호, 「보건교육·학교보건과 나」, 권이혁 외 『보건학과 나: 51인, 대한민국 보건학을 말한다』, 신원문화사, 2008, 105쪽.

공중보건원은 1954년 3월 6일, 제3기 보건요원 강습회를 마쳤고, 록펠러재단 주일대표 맥코이(Oliver R. McCoy) 박사 등 대표단이 1954년 6월 21일부터 5일간 한국에 체류하며 ‘의료부흥사업’을 시찰할 때에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구의과대학과 함께 공중보건원을 시찰할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⁶²⁾ 1955년 5월 초에는 WHO 서태평양지구 사무장 슈(C. Y. Shu) 박사와 위생관 벨스타인(Bierstein)이 한국 보건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내한했는데,⁶³⁾ 1955년 5월 24일 시찰 내용을 WHO 서태평양지구 책임자인 마닐라의 팡(I. C. Fang) 박사에게 보고하면서 역시 공중보건원을 언급했다. 이들은 WHO의 통계학 세미나 참가자인 한범석 박사가 공중보건원 원장을, WHO 장학생으로 마닐라에서 공부한 구연철 박사가 부원장을 맡고 있다고 WHO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세 번째 정규(full-time) 직원이 곧 통계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떠날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1955년 UC 버클리로 유학을 떠난 박재빈이 분명하다. 보고서는 나머지 인사들은 비정규(part-time) 직원이며 한미재단(AKF)이 당시까지 2만 6천 달러를 지원했고, 직원들의 월급도 한미재단이 부담한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원은 “공중보건(public health)의 기본 개념을 2개월 과정으로 가르치며”하며 “공중보건진료소(public health dispensaries) 출신 의사 83명을 훈련시켰다.”고 보고했다. 슈 박사와 벨스타인도 5월 7일 공중보건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보건사회부 및 유엔재건단(UNKRA)과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 관리들이 참석했다고 한다.⁶⁴⁾

62) 「보건사업에 한몫, 요원 강습회 수료」, 『경향신문』 1954.3.8: 「의료부흥사업 시찰」, 『동아일보』 1954.6.23.

63) 「슈 박사 내한, 보건시설 시찰차」, 『동아일보』 1955.5.3.

64) “From I. C. Fang, M.D. to Mr. Tyler Wood, UN Economic Coordinator, KCAC (1955.6.1.)”, RG 469, Entry UD 1276,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11, Health, 1953-1955, 2 of 2.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코드: AUS014_44_00C0079]

이상의 내용을 통해 공중보건원이 당시 한미재단과 WHO의 지원을 받아 미국과 필리핀에서 공중보건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한범석과 구연철 주도로 한국의 보건진료소, 보건소 근무 의사들에게 미국식, 혹은 WHO 식 ‘공중보건’ 개념을 전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전파된 ‘공중보건’ 개념은 전국 단위로 확산된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에서의 보건의료 임상 활동을 통해 현실에서 구현된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기용숙, 전중휘, 최영태 등 해방 이전부터 일본식 ‘공중위생’ 개념을 학습하고 해방 이후 서울의대와 세브란스의대 등에서 교수로 활약하던 인물들도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도 1940~50년대 록펠러재단, WHO,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미국식 의학, 보건학을 접한 인물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⁶⁵⁾ 공중보건원은 한국의 보건의학계가 기존의 일본식 ‘공중위생’ 개념을 바탕으로 미국식 ‘공중보건’ 개념을 수용하여 한국식 보건학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해방 이후 군정청 보건후생부에서 일했거나 보건후생부에서 일하던 선배의 추천을 받은 한국인 의사들은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하버드, 존스홉킨스, 미시간 대학의 보건대학원에서 미국식 보건학을 공부했다. 이들은 미군정기 보건의료 분야를 주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수립 이

65) 「최영태 박사 등 보건연구차 도미」, 『동아일보』 1947.7.12.; 「유엔 보건기구에 한국 가입을 고려」, 『동아일보』 1948.12.5.; 「국제보건기구 총회에 최영태씨가 참석」, 『동아일보』 1950.4.29.; 「기용숙씨 도미」, 『조선일보』 1949.11.12.; 「외국에 가서 연구하는 우리의 양식, 기용숙 박사편」, 『경향신문』 1950.6.23.

후까지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6·25전쟁 발발을 계기로 주한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가 한국인의 보건과 위생을 관리, 통제하면서 한국인 의사들은 이들의 보건의료 활동에 참여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 유학을 통해 미국식 보건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한국 보건의학계의 1세대 인물로 자리 잡았다. 한범석, 윤유선, 백행인, 주인호가 미군정기 미국 유학 이후 6·25전쟁기 UNCACK과 정부의 보건의료 활동에 참여하고 전쟁 이후 각 대학의 예방의학교실을 창설하거나 주도했다면, 김인달, 양재모, 권이혁, 김명호, 방숙, 박재빈 등은 전쟁기에 UNCACK과 정부의 보건의료 활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한미재단과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 보건학 석사과정(MPH)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들은 주로 해방 이전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나 경성, 세브란스, 대구 의학전문학교에서 공부하여 일본식의 '이론 중심 교육'을 받은 바탕 위에 해방과 6·25전쟁을 계기로 현장에서 임상 경험을 쌓았고, 미국 유학을 통해 '임상 중심 교육'이라 할 수 있는 미국식 보건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했다. 이들은 서울의대의 미네소타 프로젝트보다 더 앞서서 미국식 보건학을 적극적으로 수용, 도입하면서 보건의학계의 1세대로서 주요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교실 및 보건대학원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미국식 공중보건학(public health)이 한국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계기는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의 확산과 이를 뒷받침한 공중보건원의 창설이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1953년 각각 15개소와 471개소에서 1958년 26개소와 499개소로 늘어났고, 1962년 보건소법 전면 개정 이후에는 보건진료소가 보건소로 대체되면서 전국에 189개소의 시·군 보건소로 변모해갔다.

1953년 9월 공중보건원(School of Public Health, Korea)의 창설은 이렇게 증가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를 뒷받침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

기 위한 것이었다. 한미재단과 WHO의 지원을 받아 미국과 필리핀에서 공중보건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한범석과 구연철은 공중보건원 창설을 주도하여 한국의 보건진료소, 보건소 근무 의사들에게 미국식, 혹은 WHO식 '공중보건' 개념을 전파했고, 이렇게 전파된 '공중보건' 개념은 전국 단위로 확산된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에서의 보건의로 임상 활동을 통해 현실에서 구현되었다. 따라서 공중보건원은 한국의 보건의학계가 기존의 일본식 '공중위생' 개념을 바탕으로 미국식 '공중보건' 개념을 수용하여 한국식 보건학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중보건원을 UNCACK의 한국측 보건책임자였던 한범석이 주도하여 창설한 점, 공중보건원이 1953년 9월 창설되어 1955년 12월 폐지된 점, WHO 서태평양지구 책임자인 팡(I. C. Fang) 박사가 슈(C. Y. Shi) 박사로부터 받은 한국 보건시설 시찰 보고서를 타이러 우드(Tyler Wood) 경제조정관에게 전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공중보건원은 비록 한미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았고, 한국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조직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이 역사적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KCAC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020.11.16. 투고 / 2020.12.20. 심사완료 / 2020.12.31. 게재확정)

[Abstract]

The Korean War and the formation of Korean 'Public Health'

Lee, Dong-won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system by looking at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community and health science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Existing studies have mainly noted the post-1960s when the foundation of health and medical care was laid, which reflects the reality to some extent, bu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r and the change of the 1950s were relatively neglected. Therefore, this article looked at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n health and medicine in the connection with the public health activiti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U.N. forces and Korean doctors who studied abroad.

I tried to understand in detail what role Korean doctors played in the formation of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studied at Kyungshung Imperial University's School of Medicine, Kyungshung, Severance, and Daegu Medical College, and received Japanese-style 'theory-oriented education'. In addition, they gained clinical experience in the field after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and systematically studied American-style health science, which can be called 'clinical-oriented education,' mainly through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They actively embraced and in-

troduced American-style health science ahead of the Minnesota projec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eading the preventive medicine departments and graduate schools of health at major medical schools as the first generation of health medicine.

Along with this, the reason for the firm establishment of American-style public health in Korea was the spread of public health dispensaries and centers, and the creation of th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that supported it.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in September 1953 was aimed at fostering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to support the nationwide increase in public health dispensaries and centers. The concept of American or WHO-style 'public health' has been disseminated through th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and the concept of 'public health' spread in this way was realized in reality through health care clinical activities in public health dispensaries and centers. Therefore, th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greatly contributed to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community adopting the American concept of 'public health' based on the existing Japanese concept of 'public hygiene' and establishing itself as a Korean-style health science.

□ Keyword

Public Health, Preventive Medicine, Public Health Dispensaries, Public Health Centers, Th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참고문헌]

- 『매일신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권이혁, 『권이혁 회고록, 또하나의 언덕』, 신원문화사, 2000.
권이혁 외, 『보건의학과 나: 51인, 대한민국 보건의학을 말한다』, 신원문화사,
2008.
권이혁 외, 『기초의학과 나의 삶』, 신광출판사, 2009.
대한보건협회, 『대한민국 보건발달사』, 지구문화사, 2014.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50년사, 1959~2009』,
2009.
서울보건연구회, 『보건백서』 上, 1981.
서중석 외,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아카데미, 1997.
신영전·서제희, 「미군정 초기 미국 연수를 다녀온 한국인 의사 10인의 초
기 한국보건행정에서의 역할」, 『보건행정학회지』 23-2, 2013.
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이임하,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보건·위생 정
책」, 『사회와 역사』 100, 2013.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전중휘, 『의창야화: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의학출판사, 1994.
최규진, 『한국 보건의료운동의 궤적과 사회의학연구회』, 한울 아카데미,
2016.
최제창, 『한미의학사』, 영림카디널, 1996.